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해설 - 전한길 교수

① 경학사 ② 권업회
③ 부민단 ④ 신흥무과학교

3.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66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대한 문제이다. 신민회 회원들이 남만주 삼원보에 건설한 자치단체는 경학사, 부민단이고 여기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권업회는 이상설이 연해주에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이다.

문 4.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만주에서 전개된 무장 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신년에 왜군이 내습하여 31명이 살고 있는 촌락을 방화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나도 가옥 9칸과 교회당, 학교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11월 1일에는 왜군 17명, 왜경 2명, 한인 경찰 1명이 와서 남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죽인 뒤 ... (중략) ... 남은 주민들을 모아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나) 상해의 한국 독립투사 조직에 속해 있는 한국의 한 젊은이는 비밀리에 도쿄로 건너갔다. 그는 마침 군대를 사열하기 위해 마차에 타고 있던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 후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전일본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한국인들은 결코 그들에게 지배될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 준 것이다.

- ① 남만주에 조선 혁명군이 창설되었다.
- ②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 ③ 독립군이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 ④ 동북 항일 연군을 중심으로 치열한 항일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4.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80

제시문은 각각 경신참변(1920년, 간도참변)과 1932년에 있었던 이봉창의 의거이다. 남만주에서 양세봉이 활약한 조선혁명군은 1929년, 한국광복군 창설은 1940년, 봉오동·청산리전투는 1920년으로 경신참변 직전, 동북항일연군은 1936년, 보천보 전투는 1937년이다. 연도만 암기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이다. 간도참변의 또 다른 이름이 경신참변이라는 것을 연습했던 수험생은 쉽게 답을 찾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제시문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헤맸던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문 5. 조선 전기 사림(士林)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山林)이 존중되었다.
- ②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강조하였다.
- ③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하였다.
- ④ 중소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방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5.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60

조선전기 사림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항이므로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이 존중받았던 시기'는 대체로 17세기 인조 때의 병자호란 이후이다. 하지만, 사림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오답을 체크한 수험생이 가장 많았던 문항에 해당된다.

문 6. 삼국의 항쟁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다.

- ㄴ.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 ㄷ.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 ㄹ.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다.

- ① ㄴ → ㄷ → ㄹ → ㄱ
- ② ㄴ → ㄹ → ㄷ → ㄱ
- ③ ㄹ → ㄱ → ㄴ → ㄷ
- ④ ㄹ → ㄴ → ㄱ → ㄷ

6.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9

삼국시대 여러 왕의 업적을 연도 순서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연도를 “몇 세기”로 구분해서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쉬웠을 것이다. 신라의 대야성 점령과 40여 성을 빼앗은 것은 백제 의자왕(7세기), 고국원왕 전사는 백제 근초고왕 때(4세기), 신라가 대가야를 합병한 것은 진흥왕 때(6세기), 고구려 평양 천도한 것은 장수왕 때(5세기)이다.

문 7. 조선 후기 호락(湖洛)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 ②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이론을 내세웠다.
- ③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 ④ 호론은 북학파의 과학 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7.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70

18세기 노론 내부의 심성론에 대한 논쟁인 ‘호락논쟁’을 묻는 문제이다. 충청노론인 호론은 ‘인물성이론’으로 북벌론, 서울·경기노론인 낙론은 ‘인물성동론’으로 북학론의 바탕이 되었다.

문 8. 연표의 (가) ~ (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 발발
↓	↓	↓	↓	↓
	(가)	(나)	(다)	(라)

- ① (가)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 ② (나) -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③ (다) - 김구·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 ④ (라) -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8.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318~321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도를 묻는 문제이다. 모스크바3국외상회의는 45년 12월, 5.10총선거는 48년 5월, 대한민국정부수립은 48년 8월 15일, 6.25전쟁은 50년,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41년, 북한 정부 수립은 48년 9월 9일,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은 48년 4월, 반민법 제정은 48년 9월이다.

문 9.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에 따라서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저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쳤으며 괴력난신(怪力亂神)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 어날 때는 부명(符命)과 도록(圖籙)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 보다 다른 일이 있었다. 그래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중략) ...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유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어찌 괴이하 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이(神異)로써 이 책의 앞 머리를 삼은 까닭이다.

- ①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 ②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 ③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 ④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신화를 수록하였다.

9.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54**

제시문은 “신이사관”이 반영된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다.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중시한 것은 이제현의 사략,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한 기전체 역사서는 삼국사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한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문 10. 다음 정치관과 관련이 깊은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冢宰)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 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직책 이 매우 크다. 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있고 강함과 유약함의 차이가 있으니, 옳은 일은 아뢰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相)이라 하니, 곧 보상(輔相)한다는 뜻이다.

- ① 육조 직제제의 시행
- ② 사간원의 독립
- ③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 ④ 집현전의 설치

10.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57**

제시문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 나오는 재상 중심의 정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재상 중심의 정치는 세종 때 실시한 의정부서사제이다.

문 11. 밑줄 친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왕 7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왕 19년에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였다.

- ①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 ③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④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11.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9

제시문은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한 신라 법흥왕에 대한 설명이다. 우산국 합병은 지증왕, 국학 설립은 신문왕, 화랑도 강화는 진흥왕의 업적이다.

문 12. 다음은 같은 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 박종철 사건
- 4·13 호헌 조치
- 6·10 국민 대회 개최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 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③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 ④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12.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337

제시문은 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6. 29선언 결과 5년 단임제의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국보위는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후 전두환이 만든 것이고, 4.19와 5.18 때와는 달리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는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다. 노태우가 6.29민주화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문 13.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와 석굴암, 수원 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조선 시대 왕릉 등이다.
또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례,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등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① ㉠ -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 ② ㉡ - 청동기시대의 돌무덤이다.
- ③ ㉢ -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 ④ ㉣ -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하였다.

13.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83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에 보관중인 것을 프랑스가 약탈해간 것은 “조선왕실의 의궤”이고, 직지는 프랑스 수집가가 수집해간 것이다. 수업시간에 특별히 강조했고 5.0배속과 필기노트에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강조했다.

문 14.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동통보를 비롯한 돈 15,000관을 주조하여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 딴 은병을 만들어 통용

시켰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활구(活口)라 불렀다.

- ①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 ②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하였다.
- ③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두었다.
- ④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14.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90

제시문의 해동통보, 은병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고려 숙종 때 발행되었다. 공인과 금난전권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것이고, 동시전 설치의 신라 지증왕 때이다.

문 15. 다음 민요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 전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짚신에 감발차고 패랭이 쓰고
뽕무니에 짚신 차고 이고 지고
이 장 저 장 뛰어가서
장돌뱅이들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듣고
목소리 높여 고래고래 지르며
... (중략) ...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네
다음 날 저 장에서 다시 보세

- ① 15세기 후반 이후 장시는 점차 확대되었다.
- ② 보부상은 장사에서 농산물, 수공업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 ③ 정부가 조선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
- ④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하였다.

15.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97, p.107

제시문은 15세기말에 생긴 장시의 보부상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전기 태종 때 저화, 세종 때 조선통보가 발행되었지만 유통은 부진했다. 유통이 활발한 것은 조선후기의 상평통보 뿐 이다.

문 16.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
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
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 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④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16.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92

제시문은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한 김홍집내각의 군국기무처에 대한 설명이다. 1차 때는 은본위제가 시행되었고, 2차 때는 근대적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의정부와 삼군부의 부활은 흥선대원군 때, 지계발급은 광무개혁 때이다.

문 17.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관리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나) 여러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①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하였다.
- ② 화백회의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일이 있었다.
- ③ 호족이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 ④ 6두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17.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32

제시문은 각각 신문왕의 녹읍혁파와 경덕왕 때 녹읍 부활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두 자료의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신라 중대 6두품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내용이고, 병부 설치의 범흥왕, 음탕한 짓을 하여 화백회의에서 폐위된 왕은 진지왕, 호족의 등장은 신라 하대이다.

문 18. 다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주고,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約正)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 『율곡전서』중에서 -

- ①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 ②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였다.
- ③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고, 상두꾼도 이 조직에서 유래하였다.
- ④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18.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28, p.129

제시문은 향약의 지도자인 “약정”이란 말과 “규약”이란 말을 통해서 향약임을 알 수가 있다. 상두꾼은 향약이 아니라 향도가 바뀐 것이다.

문 19. 밑줄 친 ‘평량’과 ‘평량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사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평량의 처는 소감 왕원지의 사노비인데, 왕원지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의탁하고 있었다. 평량이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남과 함께 왕원지 부부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 『고려사』중에서 -

—<보 기>—

- ㄱ. 평량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 ㄴ. 평량은 주인집에 살면서 잡일을 돌보았다.
- ㄷ. 평량의 처는 국가에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 ㄹ. 평량의 처는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19.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20, p.122

제시문의 평량은 사노비 중에서 외거노비이므로 자신의 토지도 가질 수가 있고 주인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살고 있다. 그의 처는 소감 왕원지의 술거노비로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다. 국가에 신공을 바치는 것은 사노비가 아니라 공노비이다.

문 20. 다음의 경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 1 조 :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케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함
- 제 3 조 : 구 백동화의 품위(品位)·양목(量目)·인상(印象)·형체
(形體)가 정화(正貨)에 준할 수 있는 것은 매 1개에
대하여 금 2전 5푼의 가격으로 새 화폐로 교환함이
가함

- ①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 ② 일본제일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 ③ 액면가대로 바꾸어 주는 화폐교환 방식을 따랐다.
- ④ 구 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20.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24, p.228

제시문은 1905년 메가다가 추진했던 ‘화폐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업은 조선의 금융 장악을 위해서 기존의 백동화와 상평통보를 회수하고 일본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인데, 화폐교환의 기준이 화폐의 액면가대로 교환해주지 않고 ‘새 돈이나 현 돈이나’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차등 교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정보가 늦었던 조선 상공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